억압받은 민중 정신의 발상지

독자투고 신동엽 시인의 장시 '금강'에 나타난 역사인식 고찰

Ⅰ. 서론

현재 문학만이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사회의 지배적 담론으로부터 '반언설 counter-discours'을 형성하고 있다. 인간은 대상에 대한 비판력으로 역사의 거울 속에 반영될 인간정신의 모습을 파악해, 합리성 속에 감추어진 비합리성과 이데올로기 속에 숨어 있는 비논리성을 분석해낼 수 있다. 문학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의 모순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 주체들의 적대감을 종식이라고 생각해볼 때, 문학은 기존의 의미를-적대감을 기원을 포함하는-을 탈취하여 자유를 향한 욕망의 모험을 시도한다. 이 모험으로 문학자들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의식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문학의 입구에 들어서선다. 문학의 본질은 자유이므로 문학의 입구에 들어서면 우리는 자유의 결핍을 인식한다. 문학자들 속에 숨어 있는 자유의 현실적 회복을 위해 문학은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문학적 전략의 사회적 지평선을 내보인다. 우리가 문학을 통해 회복하려는 자유는 글쓰기이다. 이 글쓰기는 문학적 글쓰기이며, 정치적 글쓰기이다. 또한 이 글쓰기는 현사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자유의 가치를 재건하는 것이며, 현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되는 현재의 삶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미래의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Ⅱ. 본론-장시 '금강', 억압 받은자들의 귀환

사회는 문학의 텍스트이다. 사회는 끈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현장이며, 인간이 자기의 세계를 펼치는 장소이다. 인간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 타인의 삶에 대해 질문하며 대답한다. 누구나 사회라는 역사의 현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시인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해하고자 하는 신동엽 시인의 "금강"은 '서곡(序曲)'와 '본화(本話)'그리고 '후화(後話)'로 구성된 총 4천 8백 여 행의 장편 서사시이며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매개로 하여 현재의 역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강"에 나타난 구체적 묘사들은 반봉건/반외세/민족자주화 운동이었던 동학혁명(1894)과 제국주의로부터의 민족해방운동인 3·1운동(1919), 독재정부로부터의 자유회복과 민족통일 운동인 4·19혁명(1960)을 하나의 연결된 고리로 만들어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통찰하고 있다. 이 세 역사적 사건들의 중복성은 각 사건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하늘'을 본 것이었으며 또한 그 '하늘'은 항상 현재의 역사 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정체를 해독하는 것이야 말로 이 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1. "하늘"의 의미

이 시 "금강"에서 '하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금강'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신동엽 시인의 전 작품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이일 수 있는 사상적 근원을 포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금강"에서 '하늘'을 표현한 시를 분석하며 '하늘'의 의미를 이해해보자.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1960년 4월
역사를 짓밟던, 검은 구름장을
찢고
영원의 얼굴을 보았다.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하늘 물 한아름 떠다,
1919년 우리는
우리 얼굴 닦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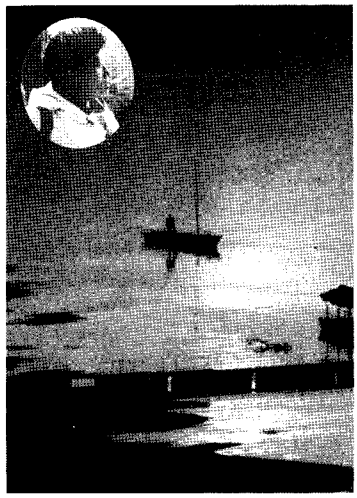
1894년쯤엔,
돌에도 나무뿌럼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 서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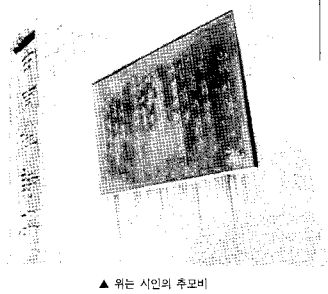
이 '서화'에서 보여지는 '하늘'이 '하늘이 보이지 않은 때는,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답게 존재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에서 정화하고 분노한다'

2. "억압받은 자들의 귀환"과 그 의미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는 해방 이후 남·북 이데올로기 대결구도에서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다. 현실 변화에 대한 사회의 탄력성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삶의 '하늘'을 본 것과 같지는 않다. 그것은 아직도 인간의 생명답게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속에서 타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타자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문학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체제에 종속당한다거나, 사회변화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의 은동에 발맞추어 대응에 나가지 못한다면 문학은 자신의 영역을 다른 영역에 양보하게 될 것이다.



◀신동엽시인이 "금강"에서 제기한 문제는 민족주체성, 분단조국의 통일에의 의지, 소외받는 민중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있다 (원안은 신동엽시인)



▲ 위는 시인의 추모비

억압받는 자들을 생산하는 사회구조 변화와 영원한 생명 노래해

역사적 사실 통해 상실된 자유 찾아가는 시대 인식

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기서 보여지는 하늘의 의미는 동학혁명(1894)에서 3·1운동(1919)을 거쳐, 4·19혁명(1960)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비춰진 역사적 사건의 의식적 경험이다. 이 경험은 인간생명의 영동성에 대한 성찰한 교훈이며, 인간의 억압구조에 대한 극복과 자유의 회복에 대한 노력이며, 인간생명의 영원성에 대한 인식이며, 불멸등한 인간관계의 청산을 목표로 하는 시킴의 실천이며,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힘동의 창조이다. 위의 인용된 시에서 말하는 '우리'는 잘못된 역사에 저항할 줄 아는 '영원의 얼굴'을 가진 인간이고, 민중의 한맺힌 '깊은 가슴'을 가진 인간이며, 스스로 자기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줄 아는 그러한 인간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 있지만 아직도 열린 사회구조를 갖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같다. 오늘날 민중들은 자기들의 세계를 파괴당하고 있으며, 브르조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배질서로 급격히 편입되고 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지만, 각성한 민중들은 민중의 자격으로는 현실질서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있다. 그들이 사회의 지배적 구조속으로 들어가려면 개인(시민)의 자격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보여지도 이것은 확연히 드러난다. 개인이 이제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는 막혔으며, 넓어 갈수록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그림회되어 가고 있다. 나 속에서 타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타자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문학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체제에 종속당한다거나, 사회변화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의 은동에 발맞추어 대응에 나가지 못한다면 문학은 자신의 영역을 다른 영역에 양보하게 될 것이다.

한국현대 사회의 비극의 근원은 일본제국주의에 있다. 그리고 일제 패망 후 전후의 두 강대국의 세계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민족보다는 각 진영 속에서 미국과 소련을 배후 세력으로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데 있다. 또한 남한은 세계 자본주의에 급격히 편입되면서 외국자본과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또 위협하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 민중들의 생활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사회구조를 억압구조로 만들어 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억압받는 자들의 귀환'은 필연적이었으며, 문학 또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삶을 위협당한 민중들에게로 다가감은 문학의 본성상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볼 때 문학의 최종적 목표는 역사적 현실 속의 '억압받은 자들의 귀환'을 사회로부터 추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역사적 조건으로부터 '억압받은 자들의 귀환'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자유를 위한여 정치에 대항하여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인간들이 될 것이다. 인용된 시에서 보여주는 분단조국의 아픔과 경제의 발전과정 속에서 소외당하는 농촌의 현실은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민족의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모순구조를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대립구도를 파악함과 아울러 모순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천착을 통한 계통의 차원에서 미래 속에 현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세계보다 미래의 세계 편에서, 계급의 방각이 아니라 계급의 새로운 발견에서 인간에 대한 사회의 억압구조를 자유로운 인간관계 개선의 대화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 저항을 해야 할 것이다.

3. 예감/통찰/운명

세계관은 예술가가 소속되어 있는 계급의 가능성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한 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순을 자기 문학의 중심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사회와 역사에 대해 적극적인 실질을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 시의 본질이 작품속에 나타나는 구체적 특성들의 상호 관련속에서 밝혀지며 사회의 모순은 나와 다른 나(타자)와의 모순이기 때문에 작품과 현실은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제공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런 관미에서 자유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각 시대마다 인간들은 자유를 다르게 지향한다.

자유를 꿈다하게 우리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잃지 않으려고 현실의 구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강화시켜 나간다. 반대로 현실 속에서 그 반대의 인간들은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현실의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자유를 유지/강화하려는 세력과 자유를 획득하려는 세력 간의 생존경쟁이 역사이다. "금강"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는 민중에 대한 억압의 역사이다. 이 억압의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시대의 요구이며, 사회적 추세이다. 그리고 이시대의 요구와 추세야말로 그 시대와 그 세계의 진리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그 태내(胎內)에 꿈틀거리고 있는 바의 오려고 하고 있는 다음 세대이다.

이상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신동엽 시인이 "금강"에서 제기한 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그것은 민족 주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당나라를 한반도에 처음 끌어 들인 것에서, 동학 당시 청·일과 해방 직후 미·소의 한반도 진입로 연결되는 한국 근대사에 대한 상징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고, 물체는 현실 속에서 소외받는 민중에 대한 이해이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농민과 노동자 문제에 대한 반성의 제기로 사회 현실에 대한 경제적 민주화의 요구라고 볼 수 있으며, 셋째는 분단 조국의 통일에의 의지이다. 당시의 부패한 정치 지배자들에게는 민족 통일에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동학 혁명, 3·1운동, 4·19 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에 의한 민족 통일 의지의 표출이라고 부를 수 있다.

Ⅲ. 결론

현재의 사회는 이미 언어와 존재가 분리된 세계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언어적 존재인 동시에 존재의 언어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올바른 존재에 이를 수 있는 비밀통로를 언어와 존재가 하나가 될 때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시 "금강"은 자유로운 존재가 엿들는 것을 분열된 언어가 하는 말, 언어와 존재의 등식에서 들려오는 자유의 목소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자유의 목소리는 민족의 혼이 살아숨쉬는 세계의 언어이다. 민족정신의 고향으로서 언어, 한(恨)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접근로가 된다. 한의 언어가 민족 자유의 새벽종으로서 울린는 한, 현실의 상황은 아직도 '좋은 언어'의 창조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사명은 이 '좋은 언어'의 창조다. 이 '좋은 언어의 창조', 한의 언어를 추구함은 시간을 소급하여 과거로 다가감이 아니다. 그것은 고향을 잃어버린 민족의 혼을 찾기 위한 한(恨)의 발생지, 민중에게로 나아감이다.

이 봉 일
(대학원석사수료 · 국문학)

第8回 全國 大學生論文 懸賞公募

신한은행은 1982년 7월 7일 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일반시중은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은행으로서 젊은이의 꿈과 야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금융시대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다짐하는 저희 신한은행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8회 전국 대학생 논문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의욕에 불타는 전국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요
● 설 립 일 : 1982. 7. 7.
● 은 행 장 : 라 응 찬
● 자 본 금 : 5,160억원
● 총 수 신 : 6조 4천억원(1992. 10월말 현재)
● 영업전망 : 국내 123개소
해외 7개소(1992. 10월말 현재)

응모요강
1. 자 격
● 응모마감일(1993. 5. 31) 현재 전국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2. 응모논제 (아래 논제중 택일)
1) 家計貯蓄의 增大方案
2) 福祉社會建設을 위한 稅制改革方向
3) 世界經濟秩序 變化와 韓國의 選擇
4) 勞使協議會制度의 改善方案
3. 응모마감일
● 1993. 5. 31(월)
(우송시 당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당선작발표
● 1993. 6. 30(수)
● 당선자 개별통지와 한국경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5. 상 금
● 최우수상 : 1편이내 300만원
● 우 수 상 : 2편이내 각 150만원
● 가 작 : 3편이내 각 80만원
● 입 선 : 5편이내 각 40만원
6. 응모요령
●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 (WORD PROCESSOR로 작성, 제출시 20~30매 내외)
7~8매 정도의 요약문 첨부요 (WORD PROCESSOR로 작성, 제출시 2~3매 내외)
나. 작품부문
● 공익광고 : 환경보전 캠페인
● 기업광고 : 삼성생명, 동진출판, 제일제당
● 제품광고 : 삼성항공 기네마, 금호타이어 바퀴레이서, 삼성물산 바이킹, 동서식품 맥심, 르라이나화장품, 삼성전자 삶는세탁기, 피콘 노란피존, 삼일제약 애티피도, 대우자동차 에스페로, 동양제과 부유
7. 특 전
● 최우수작 및 우수작 입상자는 당행 입행지원시 필기시험 면제 특전 부여. (단, 당행 제반 채용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함)
8. 기 타
● 응모작 제출시 한문 상림 및 연락처를 명기하고 본인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 것.
●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행 소유임.
● 한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치 말것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 본점 종합기획부로 문의할 것. (전화번호 : 756-0505 교환 3040, 3041)

새색의 꿈 키우는 보람 신한은행

제14회 대학생 광고대상 논문 및 작품모집

모집요강

1.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단, 박사과정수강자는 응모할수 없음)
2. 응모마감
1993년 2월 27일
3. 응모주제
가. 논문부문
● 선진국(美, 日)과 한국의 광고회사에 대한 보상체계 비교
● 국내기업들의 중장기적 브랜드 관리전략 사례 연구
● 설비산업의 발전에 따른 마케팅전략
● 기업 이미지가 상품구매에 미치는 영향
● 르네에이티브 전략으로서의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고찰
● 기타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등에 관련된 주제 연구
나. 작품부문
● 공익광고 : 환경보전 캠페인
● 기업광고 : 삼성생명, 동진출판, 제일제당
● 제품광고 : 삼성항공 기네마, 금호타이어 바퀴레이서, 삼성물산 바이킹, 동서식품 맥심, 르라이나화장품, 삼성전자 삶는세탁기, 피콘 노란피존, 삼일제약 애티피도, 대우자동차 에스페로, 동양제과 부유
4. 응모요령
가. 논문부문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단, 학교명이 표시된 원고지는 사용금함, 원고지 분량의 워드프로세스 가능)
나. 작품부문
● 신문광고 : 5단×37cm(5'×37cm)(흑백 또는 흑백)
● TV광고 : 30초용 TV CM 스토리보드 : 배경 (스틸컷이을 사용하여 원안은 10~15Cut 제작)
● 라디오광고 : 30초 또는 60초용 라디오광고 카세트 녹음 테이프 및 A4용지 멘트 제출
5. 시상내역
가. 논문부문
● 대 상 1편 : 상패 및 상금 150만원
● 우수상 1편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가 작 3편 : 상패 및 상금 50만원
나. 작품부문
● 대 상 1점 : 상패 및 상금 150만원
● 우 수 상 3점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신문, TV, 라디오부문 각 1점)
● 기획부문상 1점 : 상패 및 상금 50만원
● 카피부문상 1점 : 상패 및 상금 50만원
● 사진일러스트부문상 1점 : 상패 및 상금 50만원
● 오디오기획연출가부상 1점 : 상패 및 상금 50만원
6. 수상자 특혜
가. 논문·작품부문 대상과 우수상 입상자는 당사 입사지원시 서류전형과 1차면접 면제
나. 기획 입상자는 당사 입사지원시 서류전형 면제
7. 심 사
가. 논문부문
● 1차심사 : 전체 응모논문 중 당선작의 2배수 선정(10점)
● 2차심사 : 1차 예심통과논문 중 입상작 선정 (입상자에 논문은 필참)
나. 작품부문
● 1차심사 : 전체 응모 작품 중 당선작의 10배수 선정(80점)
● 2차심사 : 1차 예심통과작품 중 입상작 선정 (입상자에 작품은 필참)
8. 발 표
가. 1993년 5월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
9.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2 보영빌딩(TEL. 724-0262~4)
(주) 제일기획 홍보부 (종합광고대상 사서함 1580)
10. 기 타
● 응모작에 대한 반환은 제일기획에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치 않음.
● 작품부문 응모작은 작품앞면에 작품보다 사방 2cm 씩 큰 흑백 무지인을 만드시 부착해 제출해야 함.

CHEil communications
(주)제일기획